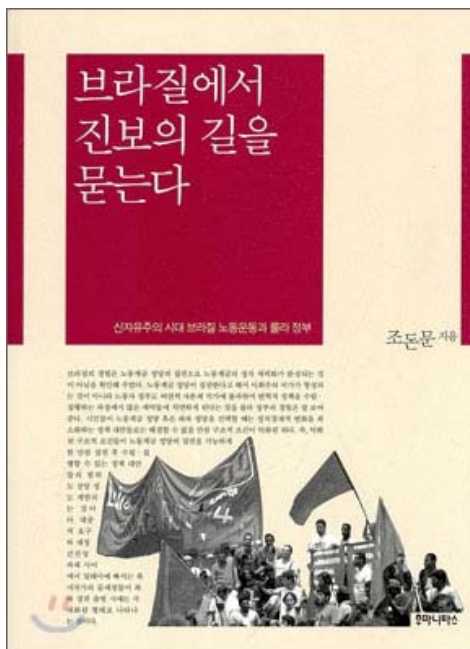


■ 브라질을 보며 한국의 노동을 읽다

—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박 윤 주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2009)

2002년 ‘행복해지길 두려워 말라’는 슬로건을 내건 브라질 노동당 후보 룰라의 대통령 당선은 소비에트의 붕괴 이후 계급정치의 종말을 예언하던 많은 이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정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던 이들 모두에게 충격적이며 놀라운 반전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움을 반영이라도 하듯, 룰라정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통화주의 정책을 고수하며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룰라 정부를 노동자를 배신한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강경한 계급정치를 벗어던진 유연한 대통령으로 칭송하기도 하였다. 빈민층을 위해 무절제한 재정지출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로 그려지는가 하면, 동시에 고금리를 유지하며 긴축재정을 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자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룰라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평가들은 많은 경우 평가자들의 계급적인 성향에 기반을 두었고, 그런 점에서 브라질 노동정치에 대한 냉정하

고 종합적인 평가는 실종되었다. 결국 룰라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데에 몰입한 나머지 브라질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노동 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정에 대한 고찰, 나아가 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노동계급성을 치열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룰라정부와 브라질 노동정치에 대한 주장만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는 이러한 분석의 부재를 말끔히 해소해 주는 책이다. 이 책은 브라질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브라질의 신자유주의, 민주화, 산업개편, 대선, 사회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브라질의 노동 운동, 계급정치 그리고 룰라정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조돈문 교수는 우선 브라질 노동 운동의 성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신자유주의가 브라질 노동 운동에 미친 영향을 까르도주 정권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화에 얽힌’(140쪽) 신자유주의 공세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브라질 노동 운동의 딜레마를 소개하였다. 이어 브라질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들어 신자유주의적 산업개편 속에서 노동 운동이 겪는 변화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여,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단적인 모듈화 생산방식과 브라질 자동차 산업 노동조합들의 꾸준한 전투성의 역설적 공존을 노동 운동의 이중 구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산업재편 속에서 분절화될 수밖에 없었던 브라질의 노동 운동 세력이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저자는 제3부에서 룰라 정부를 탄생시킨 브라질 시민들의 계급투표 성향을 분석하고, 이어 룰라정부의 정책들의 계급정치로서의 성과와 한계



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2002년과 2006년 선거를 통해 꾸준히 확대된 브라질의 계급투표성향, 특히 ‘비특전 계급’ 범주들의 지지율 상승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룰라 정부의 사회정책을 분석,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을 위한 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과 동시에 브라질의 노동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빈민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현상을 고찰하였다.

이렇듯 진지한 브라질 노동 운동과 계급정치에 대한 저자의 고찰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노동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점이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다. 저자는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노동 운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브라질 민주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딜레마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통해 추진되었던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되돌아보게 한다. 급진적인 산업구조 개편 속에서 노동세력의 분절화를 겪는 브라질 자동차 산업 노조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새로운 노동 운동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한국 노동 운동의 현실을 떠올린다. 룰라의 사회정책이 전통적인 노동 운동 지지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비전통적인 소외계층을 노동당 지지 세력으로 흡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노동정치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계급정치가 무엇일까를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저자의 브라질 노동 운동에 대한 고찰을 따라가며 한국 노동 운동을 고민하다 보면 한 가지 아쉬움을 또한 갖게 된다. 그것은 브라질 노동 운동과 한국 노동 운동이 당면한 어려움이 갖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노동 운동이 대중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관한 설명에 대한 갈증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산업구조 재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중심성을 잃지 않았던 브라질 신노동 운동의 사례를 소개하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자체의 모순에 저항하는 중산층의 등장을 성공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물음들이다. 어떻게 브라질 노동 운동은 노동자 중심성을 지켰는가? 어떻게 브라질 노동 운동은 산업개편 속에서 분절화가 가져온 폐해를 최소화했는가?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광범위하게 알려낼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해, 브라질 노동 운동이 신자유주의하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고찰과 브라질 노동당의 성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어떻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는 저자를 비롯하여 한국의 노동정치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브라질 노동 운동의 사례가 주는 크나큰 선물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냉철하고 진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노동 운동에 대한 뜨거운 화두들은 브라질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들 사회과학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라고 요약한다.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하는 사회과학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 주고 있다.□